

5·18 영화 '1980' ...광주 화평반점에 '봄'은 오지 않았다

3월 27일 개봉 앞둔 영화 '1980'
강신일·김규리·백성현 등 출연
목포 남촌서 촬영...일부 광주서도
'서울의 봄' 이어 흥행 이어갈지 관심
"MZ세대에 5·18 제대로 알리고 싶어"



촬영을 위해 특수제작한 목포 '화평반점'과 '영희 미장원' 세트장. <국픽쳐스 제공>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다"
얼마 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극장가를 휩쓸었다. 전두환, 하나회 일당의 쿠데타 과정을 그린 영화는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장안의 화제가 됐다. 당시 신군부는 군사 반란과 이듬해 5·18을 매개로 정권 탈취를 감행한다.

그리고 2024년 5월, 광주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79년, 80년 업축의 시간이 가뭇없이 흐르고 간신히 맞게 된 봄. 광주의 5월 비극을 그린 영화 '1980'이 오는 3월 27일 전국 극장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강승용 감독의 데뷔작인 영화 '1980'은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비극적인 문구를 내걸고 12·12 군사반란에서 5·18로 이어진 비극의 역사를 조명한다.

작품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도시민들의 삶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국픽쳐스와 (주)히스토리엔피가 제작을 맡았으며 주연으로 강신일,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김규리, 드라마 '고려겨란전쟁'에서 목종 역을 맡은 백성현 배우 등이 참여했다.

영화는 당초 '화평반점'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제목을 '1980'으로 변경했다. 광주의 아픔을 의미하는 네 자리 숫자가 주는 상징성과 무게감 때문일 것이다.

지난 22일 공개된 메인 예고편과 사운드에 따르면 영화는 40년 전통의 낚시 짜장을 자랑하는 화평반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초입은 5·18 발발 하루 전인 5월 17일 철이 할아버지(강신일 분)가 '화평반점' 오픈을 준비하는 장면을 초점화한다. 평생 남의 중국집에서 수타면만 팔아왔던 그가 마침내 자신만의 점포를 오픈한 것.

'화평반점'에는 80년대 히트곡 가수 윤희기의 '나는 행복합니다'가 흘러 나온다. 신장개업을 축하하는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평화로웠던 모습은 계엄군과 시민들로 뒤엉킨 거리와 오버랩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참사를 예고한다.



영화 '1980'의 메인 예고편과 사운드에 따르면 영화는 40년 전통의 낚시 짜장을 자랑하는 화평반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작중 광주 화평반에서 '영희 미장원'을 운영 하는 한수연이 써내려가는 서사도 볼거리다. 서울 출신이지만 군인 남편을 따라 광주로 이주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인물이다.

"여기가 빨갱이 중국집입니까?"
중국 음식점을 개업해 행복에 가득 찼던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계엄군으로부터 난데없는 질문을 받는다. 둘째 출산을 앞둔 만머리(김규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아들(백성현) 등은 빨갱이 음식점이라는 누명을 쓰고 폭도로 내몰린다. 물론 영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픽션이지만, 일부 서사는 광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을 그대로 옮긴 '다큐'에 가깝다.

평범한 가족들은 "내가 빨갱이 같느냐"고 반문하며 폭도가 아님을 서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부 씬을 광주에서, 대부분의 씬을 목포 남촌 공간에서 촬영했다는 점은 흥미를 배가시킨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꽃잎'(1996), '화려한 휴가'(2007), '택시운전사'(2017) 등이 나름의 작품성으로 관객들에게 각인된 바 있다.
강 감독은 이번 '1980'은 파괴당한 도시민 삶에 좀 더 밀착해 그리는 전략을 취했다. 또 '왕의 남자', '안시성' 등에서 미술 작업을 담당했던 터라 이번 작품에서 독특한 미감으로 '보는 맛'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평반점의 붉고 화려한 파사드(조형)부터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 배어들, 가두시위를 펼치는 청년들, 예스러운 건물 등이 수려한 미장센으로 스크린을 장식한다.

'062)518-1980'. 영화 포스터에 쓰여 있는 화평반점의 가상 연락처다. 그 시절 광주의 지역번호(0347)가 아니라 현재 지역번호(062)와 함께 '5·18', '1980'을 나란히 열거해 영화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부각한다. 질곡의 현대사를 거쳐 오며 '화평(和評)'할 수 없었던 1980년 광주의 아픔에 '수화기를 들고 언제든 전화하라'는 현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영화를 공동 제작한 국픽쳐스 윤여창 대표는 "소위 MZ세대 사이에서 5·18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각에서는 5월 광주의 상처를 평화하거나 오도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며 "도시민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춰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5·18을 제대로 알리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벤쿠버에서 온 편지'

'삶을 노래하는 생명력' 그리고 순환

박소미 초대전, 28일까지 무등갤러리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세상만물은 변화한다고 전제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나아가 번뇌가 사라지는 열반적정(涅槃寂靜) 등 이 세가지를 삼법인(三法印)이라 일컫는다. 삼법인은 무아와 중도를 일깨우는데, 그것의 핵심은 다름 아닌 균형이다.

박소미 작가의 작품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사유가 배면에 드리워져 있다. 그의 작품은 생명 에너지의 생성, 소멸의 관계성 등 윤회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작품에서 일관되게 환기되는 것은 생명의 지속성과 순환성이다.
박소미 작가가 '삶을 노래하는 생명력'을 주제로 무등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연다.

화가의 눈과 심상에서 견져올린 봄의 정원은 소중한 생명들로 가득하다. 봄은 모든 유기물이 존재를 알려오는 시간인 만큼, 화폭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엄과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성 등이 느껴진다. 특히 작품은 우리 산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삭'이라는 이끼류 식물을 모티브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박 작가는 "마삭"은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다른 생명체를 돋보이게 하는 식물"이라며 "저의 성정 또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식물을 초점화했다"고 설명했다.

작품 속 오묘묘한 생명은 일정한 반복과 패턴을 지향하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규칙을 넘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생명이 지닌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병학 미술학 박사에 따르면,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표현방식은 중첩된 화면

구성과 드로잉의 반복이다. 작업의 행위 속에서 생각이나 감정입, 그리고 흔적의 결과는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의도이자 시공의 궤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무아와 중도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조화로운 인격이 된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작품을 풀어가는 해법에 접근한다"며 "본인의 내면에 자리한 잡념과 번뇌를 찾아내며 자신과의 싸움을 펼쳐내려 인간됨을 쏟아낸다. 마치 해탈에 이르려는 수행자의 모습처럼 본인을 향한 엄격한 고행의 시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한다.

또한 그의 또 다른 회화적 기법은 "한국적 색채의 변질 효과와 색채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전통의 소담함을 현대적 회화로 구현해 여백의미를 살렸다는 점이다. 고졸한 조화, 전통의 장식성을 획득한 조형성은 보는 이에게 '세련된 전통미'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작가는 "삶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역시 자연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하며 마삭이라는 소재를 통한 인간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생명력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은 내 삶을 찾아가고 완성해나가는 여정이다. 그 길에서 자연이 주는 여러 형태들이 언제나 멋진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언제나 조력자로 다른 이를 빛나게 해주는 마삭이라는 이미지에서 나는 의식의 전환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와 재창조의 힘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연주단체 모집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은 전남 지역 초·중등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실음악회'에 참여할 국악 연주단체를 오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메일로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4월 22일부터 11월까지. 음악회를 통해 국악 꿈나무들에게 전통 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소 수업을 들던 교실에서 편하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단체는 교과서 수록 국악 제재곡 중 실내악·창작음악·성악곡 등 5곡 내외로 국악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 공연에는 악곡에 대한 해설과 질문, 답변 등을 포함한다.
국악 관련 학위를 가진 관·현·타악기가 장을 필수 포함한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4인 이상)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6개 단체를 모집할 예정으로 1개 팀당 5개교 내외로 배정돼 총 20시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1시수 당 50만원 사례비를 책정, 도사지역 학교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유와 감각의 완결성 갖춘 시조 미학

광주일보 신춘 출간 강대선 시인, '가시는 푸름을 기워' 펴내



강대선(사진) 시인은 시와 시조, 소설이라는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는 문인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젠 체 하는' 문인이 아니며, 더 더욱 시인이라는 '명패'만을 단 채 창작활동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시인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로 등단한 시인은 그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는 고전적인 명제를 묵묵히 증명해오고 있는 셈이다.
나주 출신 강 시인이 최근 시조집 '가시는 푸름을 기워'(상상민도)를 펴내 눈길을 끈다.
'봉숭아', '노을역', '아파트꽃 피는 나무', '시지프스', '코스모스', '함박눈', '시각시대', '남평' 등 모두 50여 편의 작품들은 서정고 고아의 울림을 선사한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에 따르면 "자연 경험의 시간에서 비롯된 사유와 감각을 심미적 언어에 담음으로써 완결성 있는 시조 미학을 구축해가는 시인"이다.
작품들이 발하는 압축과 깊이, 배면에 흐르는 울림은 흐트러짐 없이 정갈하다. 시와 시조, 소설이라는 장르를 오가며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면서도 시인은 장르에 합당한 절묘한 균형추를 찾아 안정감을 유지한다.
강 시인은 "생각하니 옛 나는 드물강에서 버들치와 살았다"며 "그 시간이 나를 지었다"고 작품집을 펴내게 된 배경에 대해 말했다.
"바랭이 강아지풀 숨죽이는 저물녘에/ 장독대 틈 사이로 구렁이 지나간다/ 고요는 뒷마루에서 먼지로 춤을 췄는/ 우체통은 주인 없는 고지를 받아놓고/ 별들은 감나무 가지에 오종종 앉아 있다/ 처마는 구부러지고 기와 물결 끊어진다/ 바람이 들락거리는 양주덕 방안으로/ 손주를 웃는 모습 흠뻑에 즐비한데/ 흠뻑이 근황을 묻는 달빛만 수심 깊다"
위 시 '마당 깊은 집'은 강 시인의 심미적 특질이

3월부터 상설공연...광주예술의전당, 전통예술공연 라인업

5개 민간예술단체 작품 선정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이 올해 '광주상설공연 전통예술공연 작품공모 선정작' 라인업을 발표했다. 전통예술공연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도 3)에서 열리는 문화관광 콘텐츠다. 지난해 12월부터 작품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5개 민간예술단체 작품을 선정, 오는 3월부터 광주공연마루에서 만날 수 있다.
전통국악양상블음판은 新(신) 마당극 '뛰는 토선

일요일.
이 밖에 장극 '춘향, 그 후' (7-8월)는 판소리예술단 소리화가 '춘향가' 이후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예락이 보여주는 '이상한 나라의 꼭두' (9-10월)는 전통 꼭두문화를 통해 인간의 다양성에 주목한다.
유선희 상설공연팀장은 "익숙한 '토벌가'부터 서구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까지 다양한 모티브를 차용해 현대적인 전통예술공연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올해 12월 22일까지 펼쳐지는 다양한 전통공연의 향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영양을 위한 특수제작한 목포 '화평반점'과 '영희 미장원' 세트장. <국픽쳐스 제공>